

碩士學位 請求論文

英語 듣기 能力 向上 方案

指導教授 金 順 澤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 教育 專攻

金 暎 男

1994年 8月 日

英語 듣기 能力 向上 方案

指導教授 金 順 澤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金 暎 男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金暎男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4年 7月 日

審査委員長

高 泰 基

審査委員

김민서

審査委員

金 鍾 勳

< 抄 錄 >

英語 듣기 能力 向上 方案

金 曠 男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順澤

최근 영어 교육의 목표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ve competence)을 배양하는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간에 효율적인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사 소통 능력을 대표하는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중에서 말하기 능력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을 뿐 듣기 능력을 어떻게 하면 신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찰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듣기 능력이 포함됨으로써 듣기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 2 장에서 제주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듣기 능력에 대한 실상을 점검하고, 제 3 장에서는 듣기 능력 신장에 대한 이론들을 검토하며, 제 4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듣기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한 실제 현장에서 이용가능한 듣기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듣기 평가의 결과를 볼 때 한 음을 구별못해서 내용 파악을 못하는 경우보다는 전체 내용을 일일이 들음으로써 내용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했음은 듣기 교육의 방향을 시사해 준다. 분절음의 식별보다는 초분절 음의 식별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단어 강세보다는 문장 강세의 식별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듣기는 각 단어의 뚜렷한 발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연속되는 음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소리의 연결현상에 익숙해야한다. 그리고 동화 현상, 이화 현상, 생략 현상, 탈락현상 등 소리의 변화 현상을 지도해야 한다.

듣기 평가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듣는 내용에 따라 정답률이 다양하다. 정답률은 학생들이 듣는 내용의 상황에 익숙한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과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의 내용을 많이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그림묘사, 그림 그리기, 그림을 묘사하고 메모하는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어휘 연습도 듣기 과정의 활동으로 설정되어야 바람직하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를 전이시키며 재구성하는 과업들이 필요하다.

목 차

| | |
|-------------------|----|
| I. 서 론 | 1 |
| II. 듣기 능력의 문제 | 3 |
| 1. 듣기 능력 평가 분석 | 3 |
| 2. 듣기 능력의 문제점 | 18 |
| III. 듣기 능력의 개발 이론 | 21 |
| 1. 듣기의 중요성 | 21 |
| 2. 듣기 교육의 실상 | 22 |
| 3. 듣기 이해력의 이론 | 25 |
| 1) 청각 구두 교수법 | 25 |
| 2) 의사 소통 중심의 언어관 | 29 |
| 3) 듣기 중심의 언어관 | 31 |
| IV. 듣기 능력의 신장 방안 | 34 |
| 1. 듣기 능력의 분야 | 34 |
| 2. 듣기 지도의 기초 | 37 |
| 1) 초분절 음소 | 44 |
| 2) 소리의 변화 | 47 |
| 3. 듣기 지도의 활동 | 49 |
| V. 결 론 | 56 |
| 참고 문헌 | 58 |
| Abstract | 61 |
| 부 록 | 63 |

표 목 차

| | |
|-----------------------------------|----|
| < 표 1 > 듣기 능력 결과 분석----- | 19 |
| < 표 2 > 최근 우리 나라 영어듣기 교육의 방향----- | 24 |



I. 서 론

최근 영어 교육의 목표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데 두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화자와 청자간에 효율적인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화자가 하는 말을 청자가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사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과 말하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처럼 의사전달을 하는데 있어 듣기와 말하기 능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 나라 영어 교육 현장에서는 읽기와 쓰기에 치중하는 교육을 함으로써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 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영어 문장을 읽고 번역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영어의 용법 (usage)만을 자세히 가르치는데 관심을 둬으로써 정작 의사 소통에서 요구하는 영어 사용(language use) 능력은 구비되지 않아서 외국인과 만났을 때는 제대로 의사를 전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오늘날 영어 교육의 방향을 학습자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데 두고 있음은 꼭 다행한 일이다. 이를 위해 영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영어 학습자의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개발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의사 소통 능력을 대표하는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중에서 최근까지는 대부분 말하기 능력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을 뿐 듣기 능력을 어떻게 하면 신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찰은 말하기 능력에 대한 언급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린이가 자신의 모국어를 습득하는 경우에도 말하기 보다 듣기를 먼저 할 뿐만 아니라 영어를 말하려는 경우에도 듣기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듣기 능력은 오히려 말하기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듣기를 가장 어려운 기

능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TOFEL 시험등에서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듣기에 대한 점수가 낮다는 데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듣기 능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영어 교육 현장에서 이용 가능한 듣기 지도 방안은 어떠해야 바람직한지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 2 장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듣기 시험에서 어떤 부분에 오류를 많이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듣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제 3 장에서는 듣기 능력 신장에 대한 이론들을 검토하며, 제 4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듣기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제시 될 수 있는지를 보인 후, 제 5 장에서 결론을 내리겠다.



II. 듣기 능력의 문제

본 장의 목적은 현재 영어 학습자의 듣기 능력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실시된 바 있는 영어 듣기 문제를 분석하는데 있다.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영어 학습자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1. 듣기 능력 평가 분석

영어듣기의 문제는 영어의 전반적인 교육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분야이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의 청취 문제로 국한시켜, 영어 듣기의 어려운 점을 살펴보기 위해 제주시 N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250명, 여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1993. 11. 23 일에 실시한 제2회 시·도 교육청 주관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듣기 평가 결과를 분석했다.

연구에 사용된 평가도구는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고등학교 영어 듣기 평가로서 20 문항으로 구성된 종합 청취력 평가 문제이다. 학생들의 영어 청취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고 그 이유를 제시해 보았다.

첫째, 영어 듣기 능력 평가를 종합 청취력 평가로 하여 실시하고 전체 문항의 구성과 문제 형식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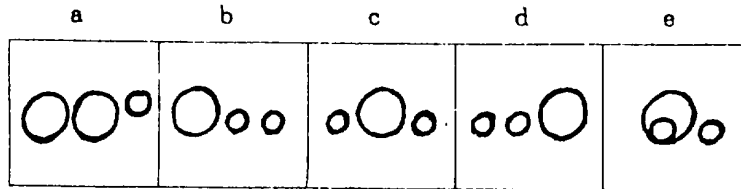
둘째, 문제에 따른 정답을 확인하고 채점을 하였다.

셋째, 각 문항별로 정답률과 오답률을 파악하였다.

그러면 듣기 문항 1번부터 분석해 보기로 하자. 1번 문제는 들려주는 내용

과 일치하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이다.

Jane is going to draw three circles. She wants to draw small circles on either side of the large one.



이 문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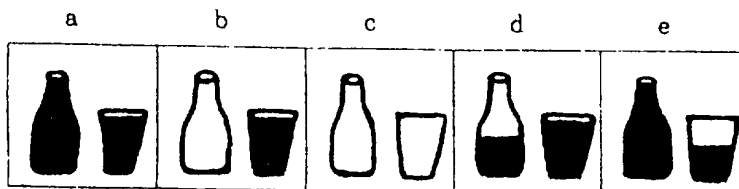
정답률 c) 62%

오답률 d) 16%

이 문제는 설명에 맞는 그림을 찾는 문제이다. 위에 제시된 그림이 그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내용 예측이 가능해서 정답률이 높다. 물론 부분적으로 either side 와 같은 어휘를 듣지 못함으로써 오답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2번 문제 역시 설명을 듣고 어느 그림이 청취문과 일치하는지를 찾는 것이다.

The glass is almost full. But the bottle is empty.



이 두 문제에 대한 결과는 각각 다음과 같다.

정답률 b) 53%

오답률 e) 18% a) 13%

2번 문제 역시 그림을 통해서 상황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른 설명을 모두 들으려는 의도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중요한 부분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잔이 가득하다는 내용은 이해했지만, 병이 비었다는 내용을 확실히 듣지 못한 것이다.

3번 문제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고르는 문제이다.

May I help you?
I want a suit.
How about this one?
Can I try it on?
Of course.!
Do you think it'll fit me?
It's very becoming.

- a) 동물원 b) 옷가게 c) 제과점 d) 서점 e) 식당

이 문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답률 b) 56%
오답률 d) 12% e) 17%



이 문제는 대화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대화를 들으면서 선택적으로 어휘 식별에 의한 상황인식을 하는 문제로서 정답률도 높은 편이다. 상황을 나타내는 May I help you?는 대부분 잘 이해했으나, 세부적으로 suit, fit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4번 역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고르는 문제이다.

Service car up with unleaded gas!

Should I check anything else? Radiator, battery, things like that?

No, thank you, How much is it?

Ten dollars.

a) 시외도로 b) 시내도로 c) 고속도로 d) 정비공장 e) 주유소

이 문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답률 e) 72%

오답률 d) 18%

4번 문제 역시 상황을 파악하는 문제로서 정답률이 높다. 이것은 상황을 예측해볼 수 있는 어휘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car, gas, radiator, battery 등은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준다. 일부 경우에는 전체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d)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5번은 대화를 듣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는 문제이다.

Excuse me.



Where can I wash my hands?

I beg your pardon?

- a) Here you are.
- b) No, I am not hungry.
- c) Sure, come this way.
- d) Don't worry about that.
- e) I asked where I could find a rest room.

이문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답률 e) 30%

오답률 a) 15% c) 31%

5번 문제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I beg your pardon?' 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Where can I wash my hands?' 라는 질문과 관련된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오답을 내고 있다. 장소에 관련된 질문이라 생각하여 c)를 답으로 택하거나, 혹은 a) Here you are 의 의미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와 연관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다.

6번 문제 역시 대화를 듣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는 문제이다.

Please come and join us for Sunday dinner.

I'd love to. I don't have any other plans.

What time shall I come?

Why don't you come about six?

a) I am surprised to hear that.

b) All right, that would be fine.

c) Thanks a lot. I am late.

d) You're welcome.

e) That's too bad.

이 문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답률 b) 59%

오답률 c) 21%

이 문제는 대화에 이어서 나올 수 있는 표현으로 알맞은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정답률이 높은 것은 why don't - ? 가 제안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부분이지만 6시라는 의미와 관련시켜 c) 처럼 늦었다는 의미와 관련시키려는 경우도 있었다.

7번 문제는 내용에 나오는 Bill 의 나이는 몇 살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I'm Bill. I was born in San Francisco. And my brother was born in Los Angeles. I'm 4 years older than he. He is 14 years old.

a) 4세 b) 10세 c) 14세 d) 18세 e) 40세

이 문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답률 d) 41%

오답률 b) 39% c) 14%

이 문제는 문장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답이 많이 나온 이유는 전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기 보다는 그 원인을 -er than 의 비교급 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 규칙을 모르는 학생이나 설령 이 규칙을 알고 있는 학생이라도 재빨리 생각해서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정답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b)나 c)를 선택한 이유는 14라는 숫자와 연관지으려는 것 때문인데, 이러한 현상은 문장이 길어지거나 복잡하다고 생각될 때 특정한 한 단어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여 준다.

8번은 짧은 대화 내용을 듣고 그 중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a) What's your hobby?

Collecting stamps.

b) Are you free tomorrow?

Yes, I'm off duty tomorrow.

c) When did you come to Korea?

I came from New York by plane.

d) How do you like your coffee?

With cream and sugar, please.

e) What's the weather like on Cheju Island?

It is mild even in winter.

이 문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답률 c) 65%

오답률 e) 13%

이 문제는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정답률이 높은 편으로 대부분이 간단한 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미약하나마 e)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일상 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what - like ? 구문으로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과정에 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듣기에 의한 표현에는 익숙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9번 또한 대화를 듣고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이다.

a)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Yes, I will open it.

b) What kind of sports do you like?

I like baseball.

c) Help yourself to the cake !

No, thank you. I've had enough.

d) How about going for a walk?

That's a good idea.

e) May I use your phone?

Sure, here you are.

이 문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답률 a) 50%

오답률 d) 19% e) 15%

이 문제는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로서 학생들이 이미 배운 문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정답률이 50%인 것은 아직도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에 쓰인 mind 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오답이 나오는 이유는 평소에 일상 생활영어의 사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로서 d), e)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는 데서도 비롯되고 있다.

10번은 들려주는 내용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를 알아보는 문제이다.

Dear, Minsu.

I'm sorry to hear that you're ill in the hospital.

I hope it is not serious and you will soon be out.

By the way, here are few flowers to cheer you up.

With best wishes.

Your best friend, Dennis

- a) 소풍가자는 제의 b) 꽃 판매를 위한 판촉
c) 병원 입원실 예약 d) 다치게 한 데 대한 사과
e) 입원한 친구 병 문안

이 문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답률 e) 60%

오답률 d) 26%

이 문제는 편지 내용을 듣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대부분이 전체내용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분적으로 d)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sorry와 hospital을 통한 추측에 의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11번은 대화의 내용 중 남자의 직업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Do you have any rooms?

Yes, we have one on the second floor.

What's the daily charge?

16 dollars a night.

Can I see it?

Certainly, just follow me.

- a) 환경 미화원
- b) 호텔 종업원
- c) 운전기사
- d) 비행사
- e) 의사



이 문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답률 b) 72 %

이 문제는 정답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등장인물의 특징을 room, floor, charge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한 것으로 본다. 또한 호텔 등의 방 예약과 관련된 표현들에 대부분이 익숙해 있음을 알 수 있다.

12 번은 대화나 짧은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답하는 문제이다.

What time is it now?

A quarter to ten. The ceremony is scheduled to begin at ten-thirty.

Yes, we have some time to kill.

위 대화에 따른 질문은 다음과 같다.

How long should they wait for the ceremony ?

a) 15 minutes b) 30 minutes c) 45 minutes d) 1 hour e) 2 hours

이 문제의 결과 분석은 아래와 같다.

정답률 c) 23%

오답률 a) 15% b) 30%

이 문제는 대화를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영어로 나오는 질문을 듣고 답을 하는 비교적 쉬운 문제이다. 그런데도 많이 틀린 이유는 학생들이 to 의 기능을 잘 모르거나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간의 어순에 대한 관념 즉, 시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분이 온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a quarter to ten 에서 quarter를 잘 듣고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시간에 관한 일상 생활영어의 사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3번은 아래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Our town is small. But we have one of the nicest zoos in the state. It's located in the suburbs of the town near the river.

이에 따른 질문은 다음과 같다.

Where is the zoo located?

- a) 읍내에 b) 강가에 c) 교외에 d) 강둑에 e) 읍 중앙에

이 문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답률: c) 15%

오답률: a) 13% b) 41% d) 18%

이 문제는 긴 글을 듣고 내용속에 나오는 장소를 고르는 문제로 세심한 주의력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학생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오답을 낸 이유는 글 전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문장속에 town, river라는 단어가 나오므로써 학생들은 이 단어들이 언급되어진 동물원 장소로 착각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장소의 어순에 대한 관념 즉, 특정한 작은 장소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보다 큰 장소가 온다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4번은 짧은 내용을 듣고 소개되는 사람의 직업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A person who finds out and writes about news events for newspaper, radio and television.

- a) An editor b) A reporter
c) A designer e) A diplomat
e) An announcer

이 문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답률 b) 54%

오답률 e) 28%

이 문제인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체 설명 내용을 이해한 비율이 높다. newspaper, radio, T.V. 와 관련시켜 내용을 파악하려 함으로써 e)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find out 이나 write 라는 동사를 듣고도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15번은 짧은 대화를 듣고 소녀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Would you like come to the party?

Thanks, but I've got a bad cold.

a) 사과 b) 거절 c) 초청 d) 칭찬 e) 항의

이 문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답률 b) 82%

오답률 c) 11%

이 문제는 평가 문항중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생들은 초청 및 이에 대한 거절 표현에 익숙해져 있음을 나타낸다. 일부 학생들은 전체 내용을 듣지 못하고 질문 내용만을 파악함으로써 c) 초청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었다.

16번은 대화속에서 여자가 주어야할 동전은 모두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Do you have any change?

What do you need?

I need some quarters.

Sure, how many do you want?

Well, can you change a dollar bill?

Certainly.

- a) 1개 b) 2개 c) 3개 d) 4개 e) 5개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답률 d) 30%

오답률 a) 14%, c) 28%

이문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인데, 오답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전체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내용어로서의 change, quarter의 개념을 확실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으로써 can you change a dollar bill?이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certainly를 수로 판단함으로써 thirty로 잘못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함으로써 a dollar 에서 유추하여 1개를 답으로 택하거나, thirty로 들은 것을 유추하여 3이라는 수와 연관지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번은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flight 3002 to Pusan.

We will arrive in Pusan at 3:25. We hope you have an enjoyable trip.

- a) On a plane b) On a ship
c) On a train d) In a hospital
e) In a bus

이 문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답률 a) 74%

오답률 b) 9%, c) 13%

이 문제는 정답률이 높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내의 방송을 한번쯤은 직접 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경험이 내용을 들으면서 상황 예측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일부는 Pusan과 관련시켜 유추함으로써 b)나 c)를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었다.

18번은 설명을 듣고 그 내용에 맞는 어휘를 찾아 내는 것이다.

It is the production of writings especially of imaginative prose, verse, etc.

a) religion b) novel c) poetry d) language e) letter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답률 c) 32%

오답률 b) 24%, e) 17%

이 문제는 전체 글을 듣고 어휘를 생각하도록 한 문제인데 전체내용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오답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장속에 나오는 a production of writings 만을 고려하여 연관시킴으로써 오답이 많은 것이다. 즉, imaginative prose, verse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다.

19번은 대화를 듣고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Man : I'm here in Korea on business.

Woman : How's the business?

Man : Pretty good. Thanks.

Woman : Do you want to drink something? The lounge is in the basement.

Man : No, I'd rather have something to eat, if you don't mind.

Woman : That's O.K. Would you care for Chinese food?

Man : Yes, it's my favorite.

- a) The man wants to drink. b) The man likes Chinese food.
- c) They both are on business d) The woman doesn't want to eat with him
- e) The woman likes to cook.

이 문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답률 b) 68%

오답률 c) 12%, e) 10%

이 문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질문과 반응의 형식으로 비교적 긴 문장으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듣기 능력은 문장의 길이보다는 대화의 상황에 어느 정도 익숙한가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많지는 않지만 오류를 범한 것을 살펴보면, business라는 어휘와 관련시켜 c)를 선택하거나, Chinese foods와 관련시켜 e)를 택하는 경우가 있었다.

20번은 설명하고 있는 I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I am not an animal. I can be moved by electric power. I am a kind of box in a tall building. I help people to go up and down within the building. Owing to me, people need not walk up and down the stairs laboriously. In order to use me, you just push some buttons. What am I?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정답률: 32%

오답률: 68%

이 문제는 설명하는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쓰는 문제이다. 소위 영어 교육 이론에서 말하는 'What am I Technique'이 듣기 문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오답이 많은 이유는 해당되는 내용을 듣고 그 답을 주관식으로 쓰라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글의 처음에 나오는 I am not an animal.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animal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함으로써 동물을 답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적은 동물들의 예는 dog, bird, lion, elephant, monkey, cat, kangaroo, rabbit 등이다. 또한 첫 문장에서 부정어 not이 있음을 이해했다라도 그 다음 문장인 I can be moved by electric power.에서 electric power와 답을 연관 지음으로써 computer, robot, machine, television, car, helicopter, bell 등과 같은 전기를 이용하는 단어들을 답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으로는 문장에 나오는 building이라는 단어와 연관 지음으로써 hotel, hospital, apartment, building, school, post office, tower 등을 답으로 한 학생도 있다. tree, wood, stick 등을 답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building과 관련하여 연상함으로써 건축 자재인 나무를 답으로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나무와 연관시킴으로써 chair, window, bed 등을 답으로 쓴 경우도 소수이지만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이 장문이 나오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word-by-word 듣기를 함으로써 부분에 집착하다보니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듣기 능력의 문제점

지금까지 제주도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듣기 시험 결과

를 분석해 보았다. 그 내용을 도표로 알기 쉽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듣기 평가 결과 분석

| 문항 | a번 (%) | b번 (%) | c번 (%) | d번 (%) | e번 (%) | 정답률 (%) | 정답 | 평가 영역 및 내용 |
|----|--------|--------|--------|--------|--------|---------|----------|--------------|
| 1 | 6 | 6 | 62 | 16 | 7 | 62 | 3 | 설명 듣고 내용 이해 |
| 2 | 13 | 53 | 5 | 18 | 8 | 53 | 2 | 설명 듣고 내용 이해 |
| 3 | 3 | 56 | 9 | 12 | 17 | 56 | 2 | 대화 듣고 내용 이해 |
| 4 | 2 | 1 | 5 | 18 | 72 | 72 | 5 | 대화 듣고 내용 이해 |
| 5 | 15 | 5 | 31 | 16 | 30 | 30 | 5 | 대화 내용 이해 |
| 6 | 8 | 59 | 21 | 5 | 5 | 59 | 2 | 대화 내용 이해 |
| 7 | 2 | 39 | 14 | 41 | 1 | 41 | 4 | 설명 듣고 내용 이해 |
| 8 | 2 | 8 | 65 | 9 | 13 | 65 | 3 | 짧은 대화 내용 이해 |
| 9 | 50 | 5 | 8 | 19 | 15 | 50 | 1 | 짧은 대화 내용 이해 |
| 10 | 0 | 7 | 4 | 26 | 60 | 60 | 5 | 설명 듣고 내용 이해 |
| 11 | 8 | 72 | 10 | 4 | 4 | 72 | 2 | 대화 내용 이해 |
| 12 | 15 | 46 | 23 | 10 | 2 | 23 | 3 | 대화 내용 이해 |
| 13 | 13 | 41 | 15 | 18 | 10 | 15 | 3 | 설명 듣고 내용 이해 |
| 14 | 9 | 54 | 2 | 4 | 28 | 54 | 2 | 설명 듣고 내용 이해 |
| 15 | 2 | 82 | 11 | 1 | 2 | 82 | 2 | 짧은 대화 내용 이해 |
| 16 | 14 | 8 | 28 | 30 | 17 | 30 | 4 | 대화 내용 이해 |
| 17 | 74 | 9 | 13 | 0 | 0 | 74 | 1 | 설명 듣고 내용 이해 |
| 18 | 10 | 24 | 32 | 14 | 17 | 32 | 3 | 단어 정의의 설명 이해 |
| 19 | 3 | 68 | 12 | 3 | 10 | 68 | 2 | 대화 내용 이해 |
| 20 | | | | | | 32 | elevator | 설명 듣고 내용 파악 |

이상의 듣기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나타난 외국어로서 영어 듣기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된 점은 소리의 식별, 청각 인상의 지속 그리고 내용의 이해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학습자들에게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소리의 식별과 어휘의 이해 능력 부족을 들 수 있다. 7 번과 12 번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둘째, 대화체에서 상대방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모자라다. 예를 들면, 5 번과 9 번 등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셋째, 일부분의 표현에만 집착하여 전체내용의 줄거리 파악 능력이 부족하다.
이를테면 13 번, 16 번, 18 번, 20 번 등의 예가 여기에 해당한다.



III. 듣기 능력 개발 이론

본 장에서는 듣기 능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외국어 교육이론에서 듣기 능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현장의 실상과 관련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1. 듣기의 중요성

듣기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중에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능이다. Rivers & Temperley(1978)가 제시하듯이 성인의 의사소통 활동 중 45%는 청취활동에, 30%는 말하기, 16%는 읽기, 9%는 쓰기에 쓰여진다.¹⁾ 이는 의사소통 기능 중 말하기보다 청취이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청취이해력 배양이 다른 세 기능 (speaking, reading, writing)보다 우선적으로 배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Snow & Perkins(1979)는 과거에는 학생들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발화를 생산하도록 교육받았으며 청취이해는 눈에 보이는 발화생산 과정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 기능으로 간주되었지만, 지금은 귀에 들어오는 정보의 이해를 위해 음운론, 어휘, 문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발화속도, 억양, 발음, 주저, 휴지에 대한 지식까지 총동원해야 하는 능동적이며 통합적인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힌다.²⁾

결국, 청취력이란 단순히 귀에 와 닿는 소리를 인식하는 정도의 수동적이고

-
- 1) Wilga M. Rivers and Mary S. Temperley (1978), *A Practical guide to the Teaching of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62.
 - 2) Becky Gerlach, Snow and Kyle Perkins (1979), *The Teaching of Listening Comprehension and Communication Activities*, *TESOL QUARTERLY* 13, p.51.

수용적인 기능이 아니라 말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 화자가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에 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기능이다. 쉽게 말해 듣기 능력이란 들려오는 입력 자료에 노출되어 그 의미만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입력된 자료를 이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에 적용시켜서 의미를 파악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듣기 능력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을 요하는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2. 듣기 교육의 실상

일반적으로 회화(speaking)가 급하지, 듣기(hearing)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말을 한다. 또 듣기와 회화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그러나 듣지 않고서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경우는 없다. 어린이는 만 3살이 되면서 논리적인 사고를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미국의 어린이들이 영어가 유창해지는 이유가 읽거나 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들려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2세에서 2.5세가 되면 간단한 심부름까지 할 정도로 이해력(understanding)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 말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 만 3살이 되면서 비로소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말다운 말을 하게 된다. 3살 난 아기의 경우를 보면, 아기가 태어나서 말다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만 3살이 되기까지 듣기 시간은 약 3,000 시간이나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수업 시간은 중학교: 약 3 시간(주당) x 40 주 = 약 120 시간(1년간), 고등학교: 약 4 시간(주당) x 40 주 = 약 160 시간(1년간)으로, 중, 고등학교 과정을 다 합치면 약 800 시간이 된다. 매일 1시간씩 연습과 복습을 한다고 쳐도 1,000 여 시간이 넘지 않는다. 이것도 대부분이 읽기와 쓰기에 보낸 시간이며 '소리'를 매체로 하여 듣기와 말하기에 보낸 시간은 20-30시간에도 미달되는 실정이다. 3)

3) 이찬승(1989), 『이찬승 미국어 HEARING』, 능률영어사 p18.

우리 나라 성인의 영어회화도 마찬가지이다.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남의 이야기를 알아 들을 수 있는 단계에서 영어의 각종 표현에 대하여 좀더 익숙해질 때까지 듣기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두고 10년이 넘도록 영어 공부를 했는데도 영어회화를 못한다고 나무라지만 실제 공부한 시간은 의외로 적으며, 그 중 듣기와 말하기에 쏟은 시간만을 고려할 때는 극히 미약하므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영어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한편 듣기 교재에 관한 실상은 어떠한가. 1970년대 이후 언어 학습에 있어서 청취이해에 대한 관점은 다른 기능에 대한 부수적인 것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성취해야 하는 중심적인 기능으로서 언어사용에 있어서 점점 중요한 능력으로 위치를 굳히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서 청취이해력이 관심을 끌기 시작했던 반면 외국의 경우는 이미 20년 전부터 많은 청취교재가 소개되었음을 비교할 때 우리의 독자적인 교재의 편찬은 사실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시중에 소개된 교재는 일상 영어회화 위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이 회화 위주이거나 청취력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도 극히 적은 부분만을 차지할 뿐이다. 대부분의 청취교재는 외국과 계약을 맺고 우리 나라 출판사 이름으로 출판되고 있다. 다만 1992년 서울 대학교 어학 연구소팀이 개발한 Modern American English(1992)의 경우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이 또한 청취이해력 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청취력 평가 대비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CBS Practical English(1987), KBS 2TV Good Morning Sonya(1989), 생활영어특강(1990) 등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그 목표가 TV나 라디오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생활영어 특강의 형식을 띠므로 청취 학습과는 거리가 멀다.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에는 자체적인 연구에 의해 한국인의 특징에 맞게 만들어진 청취력 위주의 교재가 없다⁴⁾고 할 수 있지만, 다양한 교재의 출판은 듣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이경민(1992), "청취력 교재의 문항 분석,"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P. 37.

더욱이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은 표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선 학교에서도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1982년부터 영어조기교육 이론에 힘입어, 국민학교 특활 영어가 도입되었고, '중·고등학교 학생 외국어 듣기 능력 전국 동시 평가의 실험적 실시 계획'에 의거 중·고등학교 영어 듣기 능력 평가를 중·고 2학년을 대상으로 같은 해 11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1984년부터는 고입 선발고사에 영어 듣기가 전반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1985년부터는 내신성적에 영어 듣기를 매 학기 마다 반영하게 되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영어 듣기 능력 평가에 대한 관심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었다. 이런 시점에서 1994년 대학 입시에 처음으로 외국어 영역에서 듣기평가가 실시되었다. 이와같이 입시에서 영어듣기의 비중이 새롭게 강조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표2) 최근 우리 나라 영어 듣기 교육의 방향⁵⁾

| 연도 | 동향 | 비고 |
|------|------------------------------|--------------|
| 1982 | 국민학교에 특활 영어 도입 | 영어 조기 교육의 영향 |
| | 듣기 평가 실시 | 중, 고 2학년 대상 |
| 1984 | 고입 선발고사의 영어 문제에 듣기 평가 20% 반영 | 전국적으로 실시 |
| 1985 |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영어듣기 평가 10% 반영 | 연2회 듣기 평가 실시 |
| 1994 |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듣기 평가 16% 반영 | |

5) 박원영(1988), "한국고교생의 영어 청취능력 향상에 대하여," 석사학위 논문, 한국대학교 p.5.

3. 듣기이해력의 이론

1) 청각 구두 교수법 (Audio-lingual Method)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상대방과 말을 주고 받는다는 의미이므로 여기에는 적어도 듣기와 말하기 활동이 포함되고 이 두 가지 기능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의미의 교환은 이해와 발화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듣기와 말하기는 음성을 매개체로 한다는 점에서 문자를 매개체로 갖는 읽기와 쓰기와는 구분된다. 이 점에 착안하여 외국어 학습시에는 듣기와 말하기 기능을 강조해야 한다는 이론이 대두하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각 구두 교수법이다. 청각 구두(Audio-Lingual)란 용어는 Brooks(1964)에 의해 고안되었다.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듣기, 말하기 기능을 읽기, 쓰기 기능보다 중시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자연적인 학습순서가 지켜져야 함을 주장한다. 6)

청각 구두 교수법이 처음 대두된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의 언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 전문가가 필요했었기 때문이었다. 7) 즉 목표어로 자유로이 의사소통하는 것이 당시의 급선무였고 목표였다. 이 방법은 심리학적으로 행동주의 심리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언어 학습은 습관형성의 과정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과도하게 목표어의 문형을 모방, 반복, 암기하여 일정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문형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습관화시키는데 학습목표를 두었다. 8) 그들의 주장은 '행함으로써 학습한다'거나 '연습은 완벽함을 만든다'로서,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

6) Nelson Brooks(1964),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2nd ed.*,
New York: Harcourt, Brace Co. p.144.

7) Piene Larsen-Freeman(1986), *Teaching and Principles in Langu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31.

8) Desmond P. Cosgrave(1975), "From Pattern Practice to Communication,"
English teaching Forum 13, p.20.

해주는 문형을 주의 깊게 듣고 반복하여 모방, 대치, 변형, 암기함으로써 완전히 습관화해야 하며 그때야 비로소 학습했다고 여겨졌다.⁹⁾

청각 구두 교수법은 1960년대까지 세계 전역에 널리 퍼지고 가장 이상적인 외국어 교수법이라 인식되었었다. 그러나 많은 학자나 교사들은 기대했던 만큼의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청각 구두 교수법의 단점을 의사소통적인 면과 언어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면에 있어서 단점은 다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청각 구두 교수법의 최대 단점은 문형연습을 통해 익힌 표현들이 실제로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대화로 이루어진 문형들을 연습시키다보면 이 문형들이 습관화되어 실생활에서 자동적으로 발화될 것이라는 것이 청각 구두 교수법의 전제였으나, 교실이라는 인위적인 상황에서 기계적인 연습으로 익힌 문형이 실제 언어 사용시 그대로 전이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문형 자체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쓰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문형의 유형자체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앞서의 전제에 따르면 의사소통이란 습관화된 문형이 실제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발화되는 것이므로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의사소통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문형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문형연습은 특수 유형만을 반복 연습하는 것이므로 무한수의 문형을 전부 제시하거나 연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셋째, 학생들은 문장의 의미나 그 안에 포함된 규칙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저 반복해서 연습만 한다. 따라서 의미나 구조도 모른 채 반복만을 강요하는 기계적인 훈련은 짜증과 권태를 초래하고 의사소통에 필요한 창의력을 잃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¹⁰⁾

언어적인 면에서의 단점은 Postovsky(1974)가 주장하듯이 왜곡된 언어를 습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이 듣는 것을 배

9) V. A. Postovsky(1975), "On Paradoxes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Modern Language Journal 59, p.20.

10) Stephen D. Krashen and Tracy D. Terrell(1983), *The Natural Approach :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CA: Alemany Press p.13.

우게 되므로 청각적인 입력이 언어 습득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교사의 모델을 합창연습으로 따라하게 되는 청각 구두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모범 발음을 듣기보다 실수가 섞이고 왜곡된 그들 자신의 발음을 듣게 된다. 이것이 그대로 습관화 될 경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모국어 화자의 발음을 못 알아 듣게 되며 오히려 목표어를 배우는데 간섭역할을 하게 된다.¹¹⁾

청각 구두 교수법이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별 효과가 없음이 밝혀지자 많은 학자들이 언어를 처음 배울 때에는 발화없이 상당한 기간을 청취에만 할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실험결과를 들어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시작했다.

Asher(1969)는 외국어 학습 시 시간부족이라는 학습 여건 상 네 가지 언어 기능이 골고루 숙달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수업의 첫 단계에서는 오직 한 가지의 기능만을 집중적으로 연습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이라 주장했다. 그 기능은 다른 세가지 기능, 특히 말하기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전이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청취 이해력을 선택했다.¹²⁾ 그는 외국어 학습모형을 어린이의 모국어 습득과정에서 찾으려 했다. 어린이가 말을 할 수 있기 전에 잠자코 듣기만 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으로 Postovsky(1974)와 Krashen이 각기 주장하는 '잠재기(the latent period)'와 '침묵기(the silent period)' 같은 기간동안 청취한 자료를 통해 이해력을 형성한다고 한다. 이점으로 미루어 외국어도 발화를 할 수 있기 전에 충분한 청취 이해력이 배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sher(1974)는 어린이가 말하기 이전에 이미 청취 이해력을 기르는데 그 형태는 명령에 대한 신체적인 반응이라는 점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청취 이해력이 숙달되면 말하는 기능에 자연스러운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모국어 습득과정의 특징을 이용하여 목표로 된 명령문에 말이 아닌 신체로서 반응하게 하는 '전신 반응 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 Approach)'를 고안해 냈다. Asher의 전신

11) V.A. Postovsky(1974), "Effects of Delay in Oral Practice at the Beginning of Second Language Learning," *Modern Language Journal* 58, p.231.

12) James J. Asher(1969), "The Total Physical response Approach to Second Language Learning," *Modern Language Journal* 53, pp.3-4

반응 교수법의 특징은 명령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청취 이해력의 숙달정도가 빨라졌다는 것과 청취력이 다른 기능으로의 전이력이 가장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다¹³⁾는 것을 들 수 있다.

Postovsky(1974)는 행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초기부터 듣기와 쓰기를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고 네 기능 개발의 지름길이라고 하였다. 말하기에 앞서 청취 이해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언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말을 많이 할수록 언어를 더욱 빨리 배울 것이라는 청각 구두 교수법의 전제에 도전하며 발화는 최종적인 결과라 단언하였다. ¹⁴⁾

또 그는 이 두 능력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Given this difference between the two events, it would be un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receptive and expressive skills develop simultaneously, since we have ample evidence from psychoneurological research that expressive language depends on receptive process for its development.¹⁵⁾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자연 교수법(natural approach)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Krashen & Terrell(1983)이 제안한 자연교수법의 다섯 가지 원칙¹⁶⁾ 중 습득-학습의 가설과 이해가능한 입력의 가설은 현재의 언어능력 수준보다 한 단계 위인 입력을 이해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이다. 언어가 이해가능한 입력을 통해서 습득된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력이다. 어린이들은 엄마가 제공하는 입력 없이 말을 배울 수는 없다. 결국 말함으로써가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이다.

13) James J. Asher et al(1974), "Learning a Second Language Through Commands : The Second Field Test," *Modern Language Journal* 58, p.30

14) V.A.Postovsky (1974), *op. cit.*, p. 229.

15) V.A.Postovsky(1975), "The Priority of Oral Comprehension in the Language Acquisition Process," *Proceeding of the 4th AILA congress, Stuttgart*, pp.4-5.

16) Stephen D. Krashen and Trachy D. Terrell(1983), *op. cit.*, pp.26-39.

따라서 이해가 발화를 앞서므로 학습의 초기단계에서 무리한 구두 연습은 피하고 청취 이해력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부터 듣기와 말하기를 함께 해야 한다는 청각 구두 교수법을 지양하고 청취에 우선권을 두는 학습법을 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거론하겠다.

2) 의사 소통 중심의 언어관

듣기와 말하기가 다른 기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최근의 의사 소통 중심 교수법에도 나타나고 있다.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전하는 과정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잠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 주장하는 기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는 언어 능력과 의사 소통 능력을 구분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이란 Chomsky(1965)의 용어를 빌자면 동질적인 사회내에서 작용하는 화자와 청자의 내재화된 언어 지식 즉 올바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법적 지식을 가리킨다. 그것은 모국어 화자가 자신의 언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운용(performance)과는 구별된다.

그런데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에게, 왜 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즉 화자는 언어능력 이상의 무엇을 필요로 한다. 이때의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Hymes(1972)가 주장하는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다. 의사소통능력이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며, 특정 상황에서 적절한 말을 발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¹⁷⁾ Hymes(1972)는 언어학에만 근거를 둔 Chomsky(1965)의 언어 능력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다음 네 가지의 의사소통

17) Diane Larsen-Freeman(1988),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131.

능력의 영역을 제시하였다.

- 1) Whether (and to what degree) something is formally possible,
- 2) Whether (and to what degree) something is feasible in virtue of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vailable.
- 3) Whether (and to what degree) something is appropriate (adequate, happy, successful) in relation to a context in which it is used and evaluated.
- 4) Whether (and to what degree) something is in fact done, actually performed, and what its doing entails. 18)

첫째로, 형식상으로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언어의 문법성에 관한 것으로서 어떤 언어가 문법적으로 옳으나 그르냐하는 측면이다.

둘째로, 이행수단으로 실행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언어의 실행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서 문법적으로는 옳지만 실제로 쓰일 수 있느냐하는 측면이다.

셋째로, 사용되고 평가되는 맥락과 관련하여 적당한가의 여부이다. 언어 능력의 타당성에 관한 것으로서 문법적이며 실행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사용이 부적당한 경우가 있다.

넷째로, 사실상 이뤄지고 실행되며 그 실행이 무엇을 뒤따르는가의 여부이다. 언어 능력의 수용적 용법에 관한 것으로서 한 문장이 문법적이며 실행 가능성이 있고, 또한 상황에서의 사용이 적절하면서도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Hymes(1972)는 의사소통 능력을 언어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언어 외적인

18) Hymes (1979), "On Communicative Competence", *The Communicative Approach to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19-24

요인을 포함시켜 문법적, 심리 언어학적, 사회 문화적 지식을 종합한 것으로 정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Widdowson(1979) 역시 상황속에서의 언어의 사용을 강조하면서 언어 용법(usage)과 언어 사용(use)이란 용어로 언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구분한다. 언어용법이란 언어에 대한 규칙이며, 언어 사용이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 규칙에 대한 지식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다.¹⁹⁾ 즉 언어사용은 언어를 듣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사용이 이처럼 중요함에도 우리의 교육은 언어 용법만 가르쳐주면 언어 사용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믿어 온 것이나 다름없다. 언어 용법을 배운다해서 언어 사용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²⁰⁾ 10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도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에서 실제 언어 사용은 물론 이해를 전혀 못하는 학생이 생기는 이유는 학교 수업에서 언어 용법만 배웠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영어교육은 문법이나 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르치면서도 실제로 영어를 구사해야할 상황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그쳤다. 한 언어를 알기 위해서는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까지도 수반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교육 목표는 번역에만 치우치거나 기계적인 문형 암기만을 반복하는데서 벗어나 실제 생활에서의 적응력을 기르는 데에 두어야 ²¹⁾하며 그러기 위해 청취력 향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 하겠다.

3) 듣기 중심의 언어관

그러면 어찌하여 듣기가 다른 기능에 비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가를 알아 보기로 하자. 청취이해가 발화를 선행해야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청취이해

19) H.G. Woodson(1979),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3-4.

20) *Ibid.*, p.19.

21) 이경민(1992), 前掲書, p.8.

가 다른 세가지 기능으로의 전이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언어의 발달 단계에서 듣기 능력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기능이다. 물론 언어의 네 기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먼저 듣기와 말하기는 인쇄매체 대신 음성매체를 사용하여 각각 이해하고 표현한다는 공통성을 가진다. 어린이가 말하는 어휘들은 듣는 어휘의 일부이다. 어린이가 말할 때 사용하는 어휘는 그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듣기가 말하기보다 선행기능이라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잘 모르는 언어인 경우는 말로 표현하는 연습은 전혀 하지 않고 대신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단어나 구를 많이 들어 저절로 말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음으로 듣기와 읽기는 둘 다 신호를 수용하는 이해기능이란 점에서 다른 기능에 비해 유사성이 크며 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Fahmy(1979)는 듣기가 읽기에 끼치는 긍정적인 전이에 대한 실험을 했다. 실험반 학생들에게는 테이프가 곁들여진 교재로 가르쳤고 통제반 학생들에게는 목록을 시켰다. 테이프를 곁들인다는 것은 듣기와 읽기를 혼합한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듣기가 읽기를 도왔다는 결론을 기대할 수 있었다.²²⁾ 따라서 두 기능은 상호 보완적이며 듣기 기능이 발달하면 읽기 기능도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Asher(1974)는 전신 반응 교수법을 이용하여 실험에서 청취력 위주의 수업방식이 읽기 능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어도 대학에서 한 학기 정도는 청취력 훈련에 치중하는 것이 상당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²³⁾

한편 듣기기능은 언어를 시각적으로 전이시키는 표현과정인 쓰기 기능과는 공통점이 없어 그 관계가 가장 적어 보인다. 그러나 쓰기는 말하기와 읽기 기능과 연관이 있고 이들은 다시 듣기기능과 연관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듣기기능

22) Judith Olmsted Gary and Norman Gary(1981), "Caution: Talking May be dangerous to Your Linguistic Health,"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9, p.12

23) Winitz(1981), "A Reconsideration of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in Language Training," *The Comprehension Approach to Foreign Language Instruction* MA: Newbury House Publishers, Inc, pp.213-16.

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취력과 쓰기의 관계는 어린이들이 사고를 할 때 마음속으로 기록하는 것처럼 말하고 듣는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청취력 향상이 쓰기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상에서 듣기기능은 단지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의 순서상의 시작단계로서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기능의 과정에 계속해서 작용하여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전이력이 큰 기능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듣기기능은 더 이상 말하기의 종속 기능이 아니고, 오히려 말하기에 앞서 습득되어야 하는 능동적인 기능임을 알아야 한다.

듣기 기능이 중요시될 때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지적 장점은 Postovsky를 포함한 여러 학자들의 실험결과 청취력에만 중점을 둔 학습을 했을 때 말하기와 함께 한 학습에서보다 다른 기능으로의 전이력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24)

둘째, 감정적 장점은 듣고 이해하기만을 목표로 하는 수업에서는 말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고 실수를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스스로 교정할 수 있어서 감정적인 면에서 선호된다.

셋째, 효율적 장점은 이해 위주의 수업은 모두가 동시에 합창 연습을 하는 생산 위주의 수업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도 교사로부터 동시에 피이드 백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의사 소통적 장점은 학습자가 예측하지 못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의사 소통적 행위이다. 그러나 발화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강요한다면 학습자가 발화할 만큼 충분한 언어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음으로 의사 소통적 행위라 할 수 없다.

다섯째, 매체에 적합한 장점이다. 청취력 위주의 교재들은 시청각 매체의 활용에 적합하다.

여섯째, 유용성의 장점이다. 이해 위주의 학습자들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또는 영화를 보며 혼자만의 학습이 가능하다.

24) Judith Olmsted Gary and Norman Gary(1981), *op. cit.*, pp.4-7.

IV. 듣기 능력의 신장 방안

앞 장에서 듣기 능력을 영어교육 이론에서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여기서는 듣기 능력이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인지를 알아보고 그같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어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지도해야 바람직한지를 제시하려고 한다.

1. 듣기 능력의 분야

영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지식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청취력 학습의 목표도 말 전체의 이해이지만 학습 초기단계에서는 발음, 낱말, 문장구조, 억양, 강세 패턴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세부능력의 학습이 필요하다.

청취 세부능력은 접하게 될 목표어 담화에 대한 구체적인 청취능력이다. 청취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요구되는 청취 세부능력도 다르게 되는데 Richards(1985)에 따르면 청취 목표는 회화 청취, 학술 청취, 오락 청취 등의 세가지로 분류된다. 이중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 목표는 회화 청취에 가깝고, 이를 위해 Richards(1985)가 제시한 33가지의 세부능력²⁵⁾과 Lundsteen(1971)이 제시한 일반 청취 능력 중 중요한 20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²⁶⁾

25) Jack C. Richards(1985), *The Context of Language Teach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98-99.

26) Sara W. Lundsteen(1971), *Listening: Its Impact on reading and the other Language Arts*, Urbana, Illinois: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p 52

- (1) 목표어의 변별적 소리들을 구별하기
- (2) 발화구조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강세와 억양의 기능 인식하기
- (3) 축약된 형태의 어휘 식별하기
- (4) 담화의 주요 화제에 사용된 어휘 인식하기
- (5) 문맥내에서 단어 의미 추측하기
- (6) 주요 요소, 비 주요 요소 식별하기
- (7) 다른 문법적 형태로 표현된 동일한 의미 감지하기
- (8) 상황, 참여자, 목표, 절차등을 재구성하거나 추론하기
- (9) 목적, 목표, 상황, 절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 사용하기
- (10) 기술된 사건으로부터 결과 예측하기
- (11) 사건의 원인과 결과 연역하기
- (12)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내포된 의미 구별하기
- (13) 휴지, 실수, 교정을 포함한 말 이해하기
- (14) 이해 되었는지 여부를 말이나 몸짓 언어로 알리기
- (15) 의미 있는 세부내용 정확히 기억하기
- (16) 구두로 지시하는 것을 따르기
- (17) 듣고, 답하고, 간단한 질문 만들어내기
- (18) 주제 알아차리기, 요약하기
- (19) 구어로 제시된 내용 듣고 노트 필기하기
- (20) 즐겁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 듣고 상상하기

이들과 우리 나라 제6차 교육목표 개정안의 내용 중 듣기에 해당하는 이해 기능과 공통되는 것이 (1), (8), (10), (11), (12), (15), (16), (17), (18), (19)로 열가지에 달한다.²⁷⁾ 청취 이해를 가르침에 있어서 교사가 할 일은 학습

27) 이경민(1992), 前掲書, p. 28.

자의 특정한 세부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Rivers(1985)는 청취력의 계발단계를 첫째 식별(identification), 둘째 기억을 수반하지 않는 식별과 선택(selection), 셋째 단기 기억을 수반하는 식별과 선택, 넷째 장기기억을 수반하는 식별과 선택 등으로 들고 있다.²⁸⁾ 처음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이러한 능력들을 따로따로 발달시켜야 하지만 이러한 청취력의 세부능력은 서로 구별적이라기 보다는 서로 의존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Aitken은 청취력의 세부능력을 다음 범주로 나누고 있다.²⁹⁾

- (1) 잘 알지 못하는 문맥에서 익숙지 않은 단어 등을 추리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자연적인 구어 상황에서 많은 부분의 어휘를 이해하는 능력
- (2) 구어의 통사적인 형태론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능력
- (3) 단일 문장을 넘어서 보다 긴 문장군의 통사적, 의미론적 통제(constraints))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4) 강세, 혹은 강세 받지 않은 발음, 억양, 패턴, 다른 구어적인 구두점(oral punctuation)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5) 정확한 결론과 사회적 상황, 화자의 의도, 대화의 일반적 내용에 관한 타당한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
- (6) 청자에 관한, 대화의 주제에 관한 화자의 태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 (7) 화자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쓰는 기술이나 수사적인 면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등이다.

따라서 올바른 강세, 리듬구조, 문법 등의 언어적 지식을 주고 충분히 맥락화시킨 청취자료를 제시하여 청취전에 학습자로 하여금 유용하게 예측을 하고 그들 마음 속에 내재해 있는 관련 개념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청취 연습을 흥미 있고 쉽게 진행 시켜야 한다.

28) Wilga, M. Rivers(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Chicago University Press, pp.168-72.

29) 박 원(1992), "영어 청취력 증진을 위한 교수기법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p.11.

2. 듣기 지도의 기초

청해의 형태는 크게 음운, 단어, 구, 절 등을 듣고 식별하는 '인지를 위한 듣기'와 의미내용을 파악하는 '이해를 위한 듣기'가 있다. 그러나 굳이 구별하면 이렇다는 것이지 두개의 형태는 항상 함께 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즉, 청해는 의미내용의 이해가 없이는 무의미하다. 기초수준의 외국어 교육에서는 흔히 대화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내재화한 언어지식(internalized linguistic knowledge)이 별로 없는 학습자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커다란 짐을 지워주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청취활동은 라디오의 뉴스나 일기예보를 듣는 것부터 강의나 면접, 토론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Ur(1970)은 실생활에서의 청취활동들이 대체적으로 갖는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면서 청취활동의 단서를 여기서 착안하고 있다.³⁰⁾

1. 사람들은 목적(purpose)을 갖고 기대(expectation)속에서 청취한다.
2. 들은 내용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immediate response)한다.
3. 말하는 대상을 본다.(visibility of the speaker)
4. 말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청각적, 환경적 단서(visual and aural environmental clues)들이 있다.
5. 담화내용이 짧은 묶음(short chunks)으로 나타난다.
6. 대부분 담화가 자연 발생적이어서 격식을 차린 말 (formal spoken prose)과는 달리 잉여성(redundancy), 소음(noise), 구어체(colloquialism), 청각적 특성(auditory character) 등을 지닌다.

30) P.Ur(1990), *Teaching Listening Comprehension*,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p.9.

효율적인 청취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특징들을 수업에 반영해서 진행 시켜야 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외국인이므로 실생활의 모방에만 치중해서는 안되며 그들이 학습시 직면하는 특수한 어려움인 언어적 요소, 문화적 배경도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듣기 지도시에는 학습자가 실제로 접할 상황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공식적인 연설에서 잡담에 이르는 여러 상황과 대답, 전화 대화, 라디오 듣기, TV 시청하기 등이 있다. 물론 우리의 실정에서는 상급학교 입시의 듣기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사회에서의 적용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Brown(1990)은 청취과정을 하향식(top-down) 과정과 상향식(bottom-up)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³¹⁾ 전자는 모국어 사용자와 고급 단계의 학습자가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과정으로 청자가 발화의 물리적 상황(환경, 장소, 시간 등), 화자(성별, 나이, 인간성 등), 화제에 대한 지식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언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선형적 지식(schemas)을 이용하여 무엇이 말해지고 있고 무엇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청취시 문장내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해서 파악하지 않고 그 대신 주요한 단어들을 활용하여 우리의 기대(expectation)에 그 메시지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반해 후자는 화자의 의미파악을 위해 음소 식별,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 억양, 구문 등의 이해를 기초로하여 "thin meaning" 을 알아내고, 화자의 의도를 포함하는 "thick meaning" 까지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Brown은 이해과정의 결정적 요소로 'top-down'과정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외국인 학습자가 관련지식을 활용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풍부한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최선의 지도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외국인이므로 모든 음성학적 실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bottom-up' 과정도 소홀히 해

31) G. Brown(1990), *Listening to Spoken English*, 2nd ed. New York & London : Longman Group UK Ltd, pp.10-11.

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향식 과정을 Richards et al(1987)은 담화가 일어나는 상황, 문맥, 화제에 대한 청자의 배경지식 또는 사전지식을 이용한 의미의 이해라 하였고,³²⁾ Brown은 누군가가 말을 시작함과 동시에 청자는 그 의미와 다음에 나올 말과 나타내고자하는 의도까지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황, 화자, 그리고 화제에 관한 배경지식을 이용해 발화를 들음과 동시에 예측하기 때문이라 하였다.³³⁾ 즉 청자는 주요단어를 사용해 메시지가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면 되므로 발화의 모든 음이나 단어를 일일이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상향식 과정은 반대로 우리가 지각하는 소리들로부터 화자의 의도된 의미를 알아 차리는 것으로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를 인식하기 위해 그 안에 포함된 청각 정보를 지각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즉 음소에서 단어, 구, 절, 마침내는 문장으로 인식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특징이다.³⁴⁾ 초보자의 경우는 상향식 과정을, 원어민(native speaker)이나 성인의 경우는 하향식 과정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다음은 학습자의 수준에 관계없이 이해과정에 의해 분류된 과업의 구체적인 형태이다.

상향식 과정:

- (1) 문장을 듣고 억양 곡선 구별하기
- (2) 단어내의 강세 받는 음절 찾기
- (3) 녹음된 전화내용 듣고 이름, 전화번호, 메시지 찾아내기
- (4) 듣기전에 미리 질문을 읽은 후 들으며 답 찾기

하향식 과정:

- (1) 묘사 듣고 일치하는 그림 찾기

32) Jack Richards et al(1987), *Listen for i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11

33) G. Brown(1990), *op. cit.*, p.11.

34) G. Brown(1990), *op. cit.*, pp.10-11.

- (2) 문장 듣고 화자의 태도 찾기 (공손/무례)
- (3) 머리말 부분 듣고 강의에서 토의하려는 항목 찾기
- (4) 라디오 선전 듣고 상품과 일치하는 것 찾기

이러한 상향식 모형은 1940-1950년대에 시작하여 그후 수십 년 동안 발전 해왔다. 음성학적 소리를 통하여 음소를 파악하고, 형태소를 분류함으로써 복수형 어미등을 파악하면서 단어를 인식하게 되고, 단어를 인식함으로써 절을 인식하게되고 최종적으로는 문장을 생성 파악하게 된다.

그런데 청자에게 단어가 제시되어 자음과 모음을 파악하도록 하면 듣는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애매한 음(blurred acoustic)만 단순히 인식하게 된다. 청자는 청각적 신호로서 '의미'를 파악하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고, 말한 내용을 통해서 '의미'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적극적인 청자는 상황지식, 화자에 대한 지식(성, 나이, 관점), 주제에 관한 지식 등 모든 관련 배경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들리는 소리 신호를 조정하여 자신의 기대하는 의미를 형성한다.

하향식 모형의 이해과정에 의해서 청자는 적극적으로 들은 바를 이해하려고 한다. 사전 지식을 통하여 기대한 것은 이해한 사항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듣는 내용에 풍부한 상황 문맥을 제시하고, 관련 지식을 활용하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런 점에서 듣기 과정에서 중요한 소리의 식별, 청각 인상의 지속, 듣기 내용의 이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리의 식별

학습자의 듣기 능력을 기르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외국어의 소리를 듣고 식별하는 것이다. 소리의 식별지도는 분절음소와 초분절 음소 식별지도로 구분할 수 있다. 듣기에 있어서는 분절음소보다는 초분절 음소를 통해서 단어를 연상하며, 대화나 글에서 각 단어의 분절음소는 소리의 속도 및 강약에 따라서 약화 및 탈락 된다. 따라서 음소 식별 평가를 통해 같은 단어 고르기나

다른 소리 선택하기, 다른 소리로 짝지어진 것 고르기 등 단어나 문장에서의 최소 대립어를 인용한 분절음소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또한 1994 수학 능력 시험 1, 2차 평가를 통해서 나온 듣기 형태를 보면, 단어식별 보다는 전체 내용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하나의 문장은 대부분 세 번 질문과 답변을 하는 대화이거나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진 설명하는 글이었다. 따라서 문장에 관련된 초분절음소와 글의 속도와 관련된 연접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2) 청각 인상의 지속

청각 인상의 지속이란, 귀로 들은 것을 머리속에 짧은 기간 동안 기억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청각 인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소리를 듣는 일에 익숙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앞의 소리를 기억해 가면서 다음 소리를 들어서 이 모두를 합쳐 문장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듣기 훈련은 우선 많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취 활동은 기억능력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발화되는 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화자의 말은 유리된 소리의 연속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자는 귀로 들은 소리를 머리속에 기억해 두어야 원활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청각 인상의 지속이라고 한다.

청각 인상의 기억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으로는 모든 종류의 듣기가 도움이 된다. 문형연습이나 대화 연습을 위한 모방 기억 훈련 듣기,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듣기, 받아쓰기 때의 듣기 등 모두가 유용한 듣기 연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리를 식별하고 청각 인상을 지속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들은 내용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는 참된 의미의 듣기가 되지 못한다. 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상의 단어의 의미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학습자는 들은 소리를 모두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외국어 발화를 듣는 연습을 함으로써 청각 기억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각 인상의 지속을 위한 지도 방법에는 듣기 게임, 모방 기억법이나 받아 쓰기 등이 있다.

(3) 듣기 내용의 이해

소리의 식별 능력이 개발되고 청각 인상의 기억력이 증진되더라도 청취한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듣기 활동은 효과가 없다. 우리가 외국어를 학습하는 목적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속도의 외국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청취 이해의 목표이다.

따라서 전달 내용의 이해를 위한 연습은 청취자로 하여금 듣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의 내용을 이해하여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말을 듣게 하고 이해를 확인하는 연습문제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외국어로 직접 답을 하지 않고서도 이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세음절은 발화의 흐름속에서 중요한 정보 단위이기 때문에 강세에 의해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을 모르면 청취이해가 힘들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자는 목표어의 음운론적 식별을 충분히 학습함으로써 화자가 의도하는 어휘가 무엇이며, 어떻게 구 및 절이 되고 문장이 되는지를 인식할 수 있고 다른 문장들과의 연관 관계도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문맥 정보에 의하여 어떤 어휘가 사용되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면 발화체계에서의 축약된 어휘의 인식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영어에서 많은 음절들이 발화중에 축약되거나 생략되는 것은 리듬 때문이다. 이에 외국어 청자는 일상적인 발화의 흐름속에서 음절이 많이 사라질수록 발화에 사용된 어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들게 된다. 성인의 일상생활 언어의 대부분의 경험은 일정하다. 매일 습관적인 방식으로 인사를 하고 날씨 등 매우 제한된 범위의 이야기를 할 뿐이다. 그리고 "as far as I can see", "to tell the truth", "all over the place" 등과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게다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던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전 사람의 사용한 어휘중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상황에서 원어민 화자들은 다른 사람의 한 말을 모두 듣지 않고서도 들은 바에 대한 개념 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념파악은 음성적 단서로 가능할 수도 있고, 이미 말한 내용

의 지식에 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상황에 의한 추측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익숙한 지식 때문에 원어민들은 매우 축약된 음성만으로도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익숙한 지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경험의 차이에서 생길 수 있다.³⁵⁾

1. 화자가 누구인가? (성, 나이, 교육정도, 표준어 사용자 정도)
2. 청자가 누구인가? (아기, 어린이, 충고자, 공무원, 대중)
3. 상황은 어떤가? (장소: 법정, 차, 침실), (시간: 새해, 늦은 오후, 겨울)
4. 장르는 어떤가? (대중강의, 시 읽기, 인터뷰, 친구 사이 이야기, 뉴스)
5. 주제는 무엇인가? (민족관계, 문학, 집 가격, 경제 상태, 축구경기 결과)

주제는 어휘의 내용을 결정하고, 장르는 어휘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언어 사용시에 원어민들은 익숙한 사전 경험에 의해서 애매한 음성 신호만으로도 들은 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화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하향식 과정을 통해서 원어민 화자들처럼 들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익숙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외국어 학습자인 경우는 익숙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새로운 언어를 이해함에 있어서 학습 목표나 동기에 따라 기존의 지식체계에 유입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외국어 학습자인 경우도 능률적이면서도 자동적으로 외국어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많은 상황에 대한 익숙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가능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자가 말을 끝내기 전에 화자의 말을 내적으로 결론짓는 경험을 한다. 물론 내적으로 마무리 지은 문장들이 세부적으로는 화자가 결론지은 내용과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일치한다. 화자가 말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은 화자 A가 말을 끝냄과 동시에 화자 B가 대답을 즉시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즉 화자 B는 화자 A가 말하는 것을 예측

35) G. Brown (1990), *op. cit.*, p. 154.

함으로써 말을 끝내기 전에 이미 답변을 한다. 이러한 추측 능력은 모든 문장을 듣지 않고도 전달 내용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외국어 구어체를 이해하는 학습법에서 지적 추측을 하는 훈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초기 연습 단계에서는 철저히 문맥화되고 잘 통제된 문법구조를 갖는 '문장완성' 연습부터 해야한다.

화자가 말을 시작하면 청자는 잠재의식적으로 소리를 음미하고 또 재음미함으로써 가능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화자가 문장을 이해하려고 음미하는 동안 단기 기억에는 전체적인 소리가 저장된다.

학생들은 영어가 의미 있게 가능한 많이 사용되는 교실에서 빠르게 영어를 습득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문맥상의 단서들을 많이 습득하게 되고 익숙한 표현들을 많이 익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문맥을 이용한 청취 이해의 기초 과정이 된다.

1) 초분절 음소(suprasegmental phoneme)

영어의 읽기, 말하기에서는 자음과 모음의 식별이 의미를 정하는데 중요하겠지만, 듣기는 자신의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듣는 것이므로 오히려 강세, 억양, 연결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음, 자음을 일반적으로 분절음소(segmental phoneme)라고 하는데 반해, 강세(stress), 음의 높이(pitch), 연결(juncture)을 초분절 음소(suprasegmental phoneme)라 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Rivers(1981:130)는 외국어 교사가 경시하기 쉬운 강세, 억양, 연결 세가지 요소를 강조하면서 모국어로 말하고 있는 것을 똑똑히 듣지 못하는 경우라도 귀에 들린 부분의 의미를 결합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들 세가지의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1) 강세와 억양

강세라함은 사람이 한 음절을 주위의 다른 음절보다 더 힘을 넣어서 강하게 발음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에서는 강세가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구실

을 한다. 그런데 강세의 위치와 종류는 일정한 것이 아니고 단어나 문장을 발음할 때 여러 가지로 달라져서 뜻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발음 지도시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말은 음절언어(syllable timed language)이므로 음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발음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비해 영어는 음절의 수 보다 강한 강세의 유무에 따라 시간이 결정되는 강세 박자 언어(stress timed language)이다. 다음 예를 보자

“Break, break, break,
On the cold gray stones, O sea!”

두 문장에서 첫째 문장은 3 음절이고, 두 번째 문장은 7 음절이지만, 문장 강세의 수는 각각 3 개로 같으므로 읽는 속도를 같게 해서 지도해야 한다.

문장내에서 일반적으로 내용어(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지시대명사, 의문사)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강세를 받고 기능어(관사, 전치사, 소유대명사, 인칭대명사, 관계대명사, 접속사, 조동사)는 문법적인 관계를 더 많이 갖기 때문에 강세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법조동사라 하더라도 부가의문문인 경우와 Yes-no 의문문인 경우에는 강세를 둘 수 있다.

예: He runs fast, doesn't he?
Can you swim? Yes, I can.

영어 방송을 듣는 경우 명확히 들려오는 음은 상대방이 강하게 발음하는 단어뿐이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발음했다고 하더라도 입 속에서 약하게 소리내어 발음한 단어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청취자가 초보자인 경우에는 실제로 발음하지 않은 것과 같다. 다음의 뉴스의 예문을 보자.

President Reagan is reviewing his proposed budget cuts with cabinet members, who thus far have voiced no opposition, apparently having accepted the coming cutbacks as part of their jobs.³⁶⁾

시험적으로 강하게 발음되는 단어들을 차례로 연결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 는 약하게 들리는 단어를 표시한다.

President Reagan - reviewing - proposed budget cuts - cabinet members, -
voiced no opposition, apparently - accepted - coming cutbacks - part -
jobs.

위의 단어들을 보면 의외로 의미가 잘 통한다. 즉 강음만으로도 의미가 통하는 이유는 이 단어들이 화자가 전하고 싶어하는 단어들이라서 강조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단어는 강하게 발음하고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약하게 발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강하게 발음되는 단어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약하게 발음되는 단어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강음의 청취시에 화자가 강하게 발음하는 단어라 하더라도 그 단어의 액센트 있는 강음절의 발음만 잘 들릴 뿐이지 약음절은 역시 듣기가 쉽지 않다. 위에서 강하게 발음되는 단어들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re - Rea - view - propos - budg- cuts - cabin - member - voic - no -
pposition - pparen - - cepte - comin - cu - backs - par - jobs.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의미의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강음의 위치에 최대의 주의를 기울이고 발음을 통해 단어를 추측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를 듣기보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말 즉 내용어로서 강세를 받는 음절들을 통

36) 이찬승(1989), 前掲書, pp.40-41.

해서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서 그 세부적인 방법으로서 음 변화 규칙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한편 억양은 말하는 어조, 또는 한 문장에서 음의 고저 단위로서 사람의 감정이나 놀라움, 의욕 등 심적 태도를 나타낸다. 구어의 강세와 억양은 매우 다양하고 특이해서 예측을 불허하므로 학습자 스스로 비 격식적인 언어를 통해서 상세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한다.

(2) 연결 (juncture)

연접이란 구조 언어학의 용어로 음과 음의 연속의 방식 및 휴지의 직전에 있는 음이 받는 양적, 질적인 변화를 총칭하는 것이다.

변 창진(1974:62)은 an aim과 a name은 분절 음소만으로 표기하면 [əneym]으로 동일하지만 양자의 뜻이 다른 만큼 발음에도 차이가 있다고 한다. 하나의 호흡군(breath group)의 사이에 짧은 휴지가 있어 뜻이 구별이 된다. 즉 an aim은 [ən] 과 [eym]사이에, a name은 [ə]와 [neym]사이에 짧은 휴지(pause)가 있는데 이것을 내부연접이라고 하며 [+]로 표기하며 하나의 음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휴지가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따라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영어 학습자인 경우 이와 같은 내부연접은 인접음에 영향을 주므로 원어민의 정상 속도의 발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주의가 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연접에 대한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소리의 변화

듣기, 말하기에서 흔히 사용되는 영어 음 변화(phonological change)의 현상을 고찰해 보자. 동화, 이화, 약화, 탈락 현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듣기 이해를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1) 동화 현상: news 와 같은 말을 다른 말과 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발음할 때 그것은 [nju:z]이지만 뒤에 paper가 붙어서 newspaper가 되면 [nju:speipər]

처럼 /z/ (voiced sound)가 /s/ (voiceless sound)로 변한다. News 의 /z/는 paper의 첫째 음 /p/ 때문에 무성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음이 앞뒤의 음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닮아지는 것을 동화(assimilation)라 한다.

Is that [iz ðæt] > [izzæt] > [izæt]
 Why is that? [wai iz ðæt] > [waiz ðæt]
 this year [ðis ji'er] > [ði:ji'er]
 lose you [lu':z ju] > [lu:ʒu]
 give me [gi'v mi] > [gi'mmi] > [gi'mi]
 have to [hæv te] > [hæfte]
 used to [ju:zd te] > [ju:ste]
 and then [ænd ðe'n] > [ænðe'n] > [nne'n] > [æne'n]
 at least [æt li:'st] > [eli:s] (t 탈락됨)

(2) 이화 현상(dissimilation) : 다른 소리를 첨가하거나 중복되는 소리를 생략하는 현상이다.

rural [rurel] [ruel]
 pretty [pri'ti] [pri'ri] [pri']
 probably [pre'bebli] > [pre'bli]
 literature [li'tərəʃər] > [li:rəʃər]
 want to [wɔ'nt tə] > [wɔ'n tɔ] > [wɔnne] > [wɔ'nə]
 trying to [ʃra'in tə] > [ʃra'inə]

(3) 약화 현상 : 강세를 받지 않는 모음은 [e]로, 강세를 받지 않는 마지막 t/d 음은 l/n 음 앞에서 약화 현상(elision)이 일어난다.

자음약화 : mountain, sudden, little, slightly

모음약화 : 강세를 받지 않는 a, e, i, o, u 등 모음이 [e] 처럼 발음될 뿐만 아니라 거의 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an, in, on, and, than 이 모두 [en]처럼 들린다. 약화 현상 중 특이한 것은 미국 영어에서 /t,d/가 약음절에서 /r/ 소리로 변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metal, medal, meddle은 [merel]로

동일하게 들리고, petal, pedal, peddle 역시 같은 소리로 들린다. 이들을 다른 소리로 이해하려면 문맥에 의지하여야 한다.

water [wɔtər] [wɔrər]

city [siti] [siri]

(4)탈락 현상(deletion): 강세를 받지 않는 a, e, i, o, u 등 모음은 실제 발음에서 탈락되어 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according to > 'ccording to

assemble > 'ssemble

appointment > 'ppointment

excuse me > 'xcue me

come on > c'mon

또한 주로 강세를 받지 않는 기능어의 첫머리 /h, w/ 소리가 탈락된다.

I like them. [ailaikem] ("I like him."과 같은 소리가 난다.)

tell her [telər] teller와 같은 소리가 난다.

a cup of coffee [əkʌpəkəfi] /f/ 탈락

as a matter of fact [əzəmərəfækt] /f/ 탈락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숨에 말하는 여러 낱말은 서로 연결되어 비슷한 자모음이 서로 영향을 미쳐 음가가 서로 달라지기도 하고 소리가 약화 및 탈락되기도 한다. 또한 소리가 연음(liason)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여러 현상은 교사가 규칙을 알기만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로 하여금 발음해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청해 지도 과정에 넣어야 한다.

3. 듣기 지도의 활동

지금까지 듣기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능력을 지도하는데 있어 매우 기초가 되는 여러 과정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 같은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 방안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가.

우선 그림을 보며 교사가 말하는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를 듣고 그것을 스스로 고쳐 나가는 방법과 그림에 대해 묘사를 하면 학생들이 그것을 들으며 직접 그려 가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37)

먼저 그림 묘사하기(picture description)의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실수를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고칠 수 있도록 한다.

T: There are two trees in the picture.

A: No! There's only one.

T: (beginning again): There's a tree in the picture. It's on the right.
There's a woman under the tree.

B: That isn't right! It's a man.

T: There's a man under the tree. He's standing there.

C: No, he isn't. He's sitting there.

2 - 3 개의 그림을 통해서 위와 같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림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를 작성하게 한다.

이어서 그림 그리기(picture dictation)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볼 수 없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설명에 따라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이때에 학생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There's a man under a tree. The man ... he ... is reading. He has his back against the tree. There are some birds in the picture, too. Three of them.

37) _____(1990), *Techniques for Classroom Interaction SETA*
금성출판사, pp.25-28

위 글을 통해서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는 사항들로는 “Where is the tree, on the left or on the right? Is the man sitting or standing? Is the man looking to the left or the right?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그림그리기와 비슷하지만, 묘사하고 메모하는 활동(describe and note)도 듣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활동은 그림을 그리는 것 대신에 듣기를 하는 동안에 들은 바를 메모하는 것이다. 물론 이 활동에서도 학생들은 뚜렷하지 않은 의미는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메모를 완성한 후에 메모한 것을 비교하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며, 짝을 지어 같이 활동하도록 한다. 그런 후에 그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거나 짝을 지어 그림을 작성하도록 한다.

이밖에 단어 게임(Word Bingo)을 이용하여 듣기 연습을 시킬 수 있다. 가령 색깔, 월, 음식, 직업, 취미 등의 단어들은 자주 복습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와 관련된 어휘들을 쉽게 익히기도 하지만, 쉽게 잊기도 하기 때문이다. 빠르고 간편하게 어휘를 이해시키는 방법은 게임으로서 듣기 활동에 해당하는 단어 게임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에게 복습할 항목들을 준비해오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교사는 어휘를 첨가하면서 칠판에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할 수 있다.

postman secretary artist bus driver doctor lorrydriver
teacher taxi driver shopkeeper librarian bank clerk policeman
dentist actor footballer fireman

학생들로 하여금 6개의 어휘를 임의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다음과 같이 작성하도록 한다.

| Student A | student B |
|-----------|-------------|
| actor | lorrydriver |
| dentist | postman |
| fireman | librarian |
| postman | artist |
| teacher | actor |

학생 A와 학생 B는 2개의 같은 어휘(actor, postman)를 선택해서 작성했다. 이때 교사가 단어들을 불러주면 학생들은 그들이 작성한 목록에서 순서대로 나오는 어휘들을 들으면서 전체 6개의 어휘를 가장 먼저 들은 학생이 'Bingo!'라고 외치면 이기는 것이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즐겨하기만 하면 2-3회 반복해서 실시 할 수 있다.

한편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정보를 전이(transferring information)시키는 활동이 바람직하다.³⁸⁾ 앞에서 언급된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여전히 세부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했다. 이러한 세부적인 의미들은 집중적인 의미 파악 과정을 요하는 짧은 내용중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분적으로 생략될 수 있는 긴 내용중에 있을 수도 있다. 결국 듣기의 결과는 언어에 대한 단순한 신체적 반응만이 아니라 정보를 표, 차트나 그림 등이 다른 형식으로

38) William Littlewood(1983),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71-72

전이시키기 위하여 내용중에서 관련 정보만을 발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구체화시킬 것이며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이 활동은 또한 듣기내용에 어떤 내용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의미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그 활동의 하나로서 학습자들이 다섯 사람에게 대한 인물 묘사를 듣고 행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

A girl describing her fiancé.

A boy describing a girl he dislikes.

A writer describing a historical figure.

A police describing of a criminal.

A friend describing his cousin whom you are going to meet.

이러한 인물 묘사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학생들은 각각의 인물 묘사를 들으면서 우선적으로 어떤 인물이 묘사되고 있는지를 식별한 후, 가능한 많은 정보를 표의 난에 써 넣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 Hair | Build | Height |
|------------|------|-------|--------|
| 1 Criminal | | | |
| | | | |
| | | | |
| | | | |

다음은 인물 묘사의 예이다.

He is 37 years old, approximately 5 ft 8 in tall with short black hair. He is well-built and extremely strong. This man is dangerous and may attack without warning. He should not be approached by members of the public.

She'll be at the station at 5.30. She's got long red hair and she's very good-looking. She's fairly tall - about 5 ft 8 in and very slim. Yes, I'm sure you'll enjoy meeting her.

좀 더 구체적인 예로써는 학생들은 안내 방송을 듣고 기차에 관련한 중요한 세부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경우도 제시할 수 있다.

| Destination | Time of Departure | Platform | Calling at |
|-------------|-------------------|----------|------------|
| Bristol | | | |
| | | 8 | |
| | 13:17 | | |

역내 안내 방송의 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he train now standing at platform 5 is the 12.35 to Bristol, calling at Cheltenham and Gloucester. Passengers for Cardiff should change at Gloucester.

학생들이 듣는 내용은 대화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기차의 식당 칸에서 대화를 듣고 있다고 하자. 그들은 각각의 화자들이 먹고 마시겠다고 결정한 주문 사항들을 기록해야 한다. 또 다른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여행에 대한 인터뷰를 듣고 운송수단, 거리, 시간, 비용 등에 대해 화자의 말을 듣고 자료 난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서 교사가 제공하는 표는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학습자들은 인물묘사를 듣게 되면 즉각적으로 묘사된 인물의 머리모양, 체격 등을 파악하려한다. 또한 이 같은 도표는 학습자들이 듣기를 기대하는 의미의 범위를 상당히 좁혀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명백한 예측은 이해 과업을 더 쉽게 만든다. 그러나 학습자가 독자적으로 의미를 파악할수록, 교사는 사전 활동을 점차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학습자들에게

묘사된 인물에 대해서 3 가지 중요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요구하지만, 나중에 이러한 지시는 단순히 묘사된 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메모하도록 하는 지시가 된다. 이처럼 교사는 학생들이 외부적인 도움없이 점점 더 독자적으로 듣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V. 결 론

지금까지 제주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듣기 능력에 대한 실상을 점검하고 그 듣기 능력을 개발하는 이론을 검토해 본 후 실제 현장에서 이용가능한 듣기 지도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를 제시해 보았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듣기 능력은 다른 세가지 능력보다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최근에는 말하기 능력과 더불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수법에서 우선적으로 취급되어야 할 기능으로 자리잡고 있다. 청취 능력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사소통 활동은 상대방의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함으로써 그 상황에 맞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종전의 우리의 영어 교육 현장에서는 듣기 능력의 신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됨으로써 영어 교육의 밝은 장래가 점차 기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 수험능력 시험에서 듣기 능력이 포함됨으로써 이러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현장 영어교육에서는 제주도내 고등학생들의 듣기 능력 분석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듣기 능력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특히 듣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제시한 것이 본 논문의 의도이다.

지금까지는 음소 식별을 중시하는 구두청각 교수법에 의해서 문형연습, 반복연습이 실시 되었지만, 듣기 평가의 결과를 볼 때 한 음을 구별못해서 내용 파악을 못하는 경우보다는 전체 내용을 일일이 들음으로써 내용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했음은 듣기 교육의 방향을 시사해 준다. 또한 듣기 평가에서 실시된 평가의 속도는 교과서의 속도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며, 듣기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문장내에서 강세가 주어지는 어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결과이다. 내용어와 기능어에 익숙하지 않음으로써 단어 하나 하나를 식별하려다 보니 전체의 의미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결국 분절음의 식별보다는 초분절 음의 식별, 그 중에서도 강세, 강세중에서도 단어 강세보다는 문장 강세의 식별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하며, 문장에서 내용어와 기능어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수업 과정에서 소리 자체에 익숙하도록 듣기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장내에는 잉여성이 많으며, 약어형으로서 기능어에 익숙해짐으로써 정상 속도에 익숙해질 수 있고, 최종적으로 듣기는 각 단어의 뚜렷한 발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연속되는 음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소리의 연결현상에 익숙하도록 해야 한다. 동화현상, 이화현상, 약화현상, 탈락현상 등에 의해서 내용어와 기능어의 발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

듣기 평가 분석에 의하면, 듣기의 결과는 내용에 따라 정답률이 다양하다. 즉 듣는 내용의 상황에 익숙한 정도에 따라 정답률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과서의 한정된 상황만이 아닌 다양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듣는 기회를 갖는다면 학생들은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 인식의 경험은 새로운 듣기 자료를 들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상황 인식의 경험을 위해 상황에 맞게 표현되는 대화를 자주 듣게 하거나 본고에서 제시한 그림묘사나 그림 그리기, 그림을 묘사하고 메모하는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어휘 연습도 듣기 과정의 활동으로 설정되어야 바람직하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를 전이시키며 재구성하는 과업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인희(1983), “영어 청취능력의 실태와 분석.”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하(1990), “영어 청취력 지도 및 평가에 관하여.”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정일(1991), “영어 청취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방법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 대학교 대학원.
- 박 원(1988), “영어 청취력 증진을 위한 교수기법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박원영(1986), “한국 고교생의 영어 청취능력 향상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 백현숙(1991), “듣기 및 듣기 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 외대.
- 송옥순(1987), “중학생 영어 청취력 오류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오병호(1983), “영어 청취력 평가의 이론과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경민(1992), “영어 청취력 교재의 문항분석-과업유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옥선(1991), “영어 듣기 능력 개발을 위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이찬승(1989), 『이찬승 미국어 Hearing.』 능률 영어사.
- Asher James J.(1969), The Total Physical Response Approach to Second language Learning,” *Modern Language Journal* 53.
- Asher, J.J, Kusudo J.A & Rita de la Torre(1974), “Learning a Second Language Through Commands: the Second Field Test.” *The Modern Language Journal* 58.1
- Becky Gerlach, Snow and Kyle Perkins(1979), “The Teaching of Listening Comprehension and Communication Activities,” *TESOL QUATERLY* 13.

- Cosgrave Desmond P.(1975), "From Pattern Practice to Communication,"
English Teaching Forum 13 .
- Diane Larsen-Freeman(1986),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 Fahmy(1979),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Extensive Listening and Reading Practice on Student's Ability to Read English* .
- Gary J.O. and Gary Norman(1981), "Caution: Talking May be dangerous to your Linguistic Health,"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9*
- Gillian Brown(1990), *Listening to Spoken English 2nd ed.*, New York and London: Longman Group UK Ltd.
- Hymes(1979), On Communicative Competence, *The Communicative Approach to Language Teaching*,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 Jack Richards, Deborah Gordon and Andrew Harper(1987), *Listen for i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ashen Stephen D. and Terrell Tracy D.(1983), *The Natural Approach :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CA: Alemany Press.
- Krashen, S.D. and Terrell T.D.(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CA: Alemany Press.
- Lundsteen Sara W.(1971), *Listening, Its Impact on Reading and the other Language Arts*, Urbana, Illinois: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 Nelson Brooks(1964),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2nd ed.*, New York:Harcourt, Brace Co.
- Piane Larsen-Freeman(1986), *Teaching and Principles in Language*,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 Postovsky V. A.(1975), "On paradoxes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Modern Language Journal 59.

- Postovsky, V.A. (1974), "The Effects of Delay in Oral Practice at the Beginning of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Modern Language Journal* 58.
- Postovsky, V.A.(1975), "The priority of Oral Comprehension in the Language Acquisition Process." proceeding of the 4th AILA Congress. Stuttgart.
- Richards Jack C.(1985), *The context of Language Teaching*,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vers W.M.(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Rivers Wilga M. and Temperley Mary S.(1978), *A Practical Guide to the Teaching of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 Ur P.(1990), *Teaching Listening Comprehension*,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
- William Littlewood(1983),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nitz(1981), "A Reconsideration of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in Language Training": *The Comprehension Approach to Foreign Language Instruction*, MA:Newbury House Publishers, Inc.
- Woodson H.G.(1979),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1990), *Techniques for Classroom Interaction SETA* 금성출판사

<Abstract>

A Method for Improving Listening Abilities

Kim, Young-Nam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oon-Taek

The major topics of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has been greatly moved from highly - structured, structure - centered and teacher - oriented teaching to communicatively - based, topic - centered and learner - directed teaching. Thu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language teaching is how to develop communicative competence of the learners. Listening ability is, therefore, required to develop an efficient communication between speakers and hearers.

Furthermore many researches have recently recognized the improvement of the listening ability. In particular, listening test was involved in the entrance examination of English to enter university from 1994 i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August, 1994.

Korea.

This thesis attempts to verify the importance of hearing among four skills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n doing so, this study analyzes the listening test taken by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do,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hearing, and some classroom techniques for improving listening ability.

The results of the listening test shows that students would like to hear the whole sentences and understand them. So, it is, first, important to teach one of the suprasegmental factors, sentence stress. Second, students must be trained to know liason in a sentence instead of hearing the individual distinctive sounds. Third, phonological changes like assimilation, dissimilation, elison, and deletion must be taught in a class.

The results of the listening test also tells that the rates of right answer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familiarity to the atmospheres of the given hearing contents. So, studnts must be given more opportunities to hear not only a textbook but also other materials reflecting different real life situations.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picture description, picture dictation, describe and note should be effectively used in a class. Word practicing activity like Word Bingo must be also involved in the course of hearing activities. The activity of transferring of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for the advanced lear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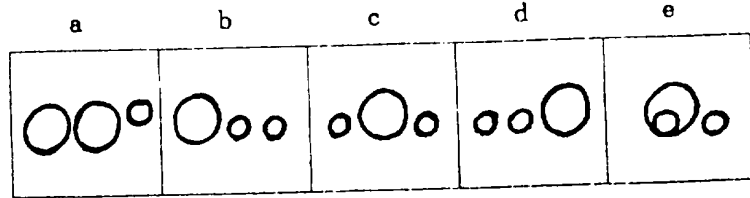
< 부 록 >

1993 제2회 시·도 교육청 주관 영어 듣기 평가 답안지 (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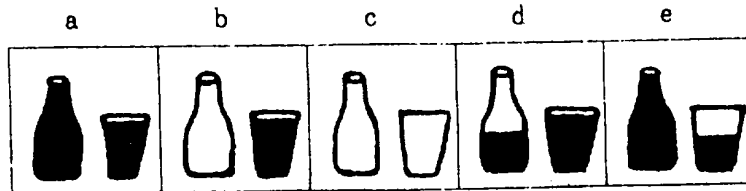
1993. 11. 26 시행

* (1-2)

1.



2.



*(3-4)

3.

- a) 동물원 b) 옷가게 c) 제과점 d) 서점 e) 식당

4.

- a) 시외도로 b) 시내도로 c) 고속도로 d) 정비공장 e) 주유소

*(5-6)

5.

- a) Here you are.
b) No, I am not hungry.
c) Sure, come this way.

- d) Don't worry about that.
e) I asked where I could find a rest room.

6.

- a) I am surprised to hear that.
b) All right. That would be fine.
c) Thanks a lot. I am late.
d) You're welcome.
e) That's too bad.

7.

- a) 4 세 b) 10 세 c) 14 세 d) 18 세 e) 40 세

*(8-9)

8.

- a) b) c) d) e)

9.

- a) b) c) d) e)



10.

- a) 소풍가자는 제의 b) 꽃 판매를 위한 판촉
c) 병원 입원실 예약 d) 다치게 한 데 대한 사과
e) 입원한 친구 병 문안

11.

- a) 환경 미화원 b) 호텔종업원 c) 운전기사 d) 비행사 e) 의사

*(12-13)

12.

- a) 15 min b) 30 min c) 45 min d) 1 hour e) 2 hours

13.

- a) 읍내에 b) 강가에 c) 교외에 d) 강둑에 e) 읍 중앙에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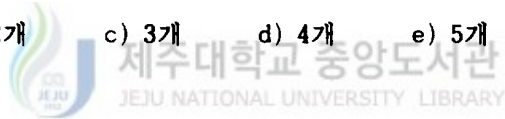
- a) An editor b) A reporter
c) A designer d) A diplomat
e) An announcer

15.

- a) 사과 b) 거절 c) 초청 d) 칭찬 e) 항의

16.

- a) 1개 b) 2개 c) 3개 d) 4개 e) 5개



17.

- a) On a plane b) On a ship
c) On a train d) In a hospital
e) In a bus

18.

- a) religion b) novel c) poetry d) language e) letter

19.

- a) The man wants to drink.
- b) The man likes Chinese food.
- c) They both are on business
- d) The woman doesn't want to eat with him.
- e) The woman likes to cook Chinese foods.

20. ()

